

## ■ 연구원 소식

###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에서 드리는 열두 번째 “영상택배” 안내



지난 주 보내드린 전주대 김윤희 교수가 진행한 “한국의 디아스포라 - 외국인과 아시아공동체” 온라인 문화강좌에 이어 이번 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고등경제대학에 계신 송잔나 교수가 **진행하는 “러시아 고려인의 형성과정과 아시아공동체”** 강연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씨앗을 뿌리고 떠난 사람 - 1959. 07. 31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라는 이름의 '조직화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긴 세월을 견뎌야 했다. 국가 권력이 만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사람의 시녀로 전락했던 신산스런 날들이었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2년 전 일어난 사건으로 사형당했던 이의 죽음이 잘못된 판결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했던 그의 죽음이 복원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3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아래와 같이 측근들에게 심경을 밝혔다.

법이 그런 모양이니 별수가 있느냐. 길가던 사람도 차에 치어 죽고 침실에서 자는 듯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60이 넘은 나를 처형해야만 되겠다니 이제 별수가 있겠느냐, 판결은 잘됐다. 무죄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정치란 다 그런 것이다. 나는 만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고 이 박사는 한 사람이 잘 살자는 이념이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한쪽이 없어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한다.

그는 일제강점기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로 풍찬노숙을 마다않고 해방 후 좌우합작을 통한 남북협상을 시도하다 1948년 제헌의회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장관을 역임하며 농지개혁정책을 펼쳤다.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국민들에게 "서울 사수"를 외치며 일찌감치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던 이승만 정부 인사들과 달리 국회의 중요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느라 동분서주한 사람이 그였다. 한강 이남으로 서류를 옮기느라 자신의 가족을 온전히 챙기지 못했다. 그의 동지이자 아내였던 김조이는 결국 서울에서 강제 납북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몇 해 흐르지 않은 엄혹한 시점에서 '평화통일'과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을 내세운 진보당을 창당했고, 신익희가 호남선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절명한 이후 야권의 단일후보로서 200만 표가 넘는 표를 얻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승만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평화통일' 자체가 이적성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가보안법으로 옹아매려 들었다. 이 때 1심 판사였던 유병진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한반공청년회" 회원 수백 명이 법정에 난입하고 그 집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 난입하고 사법부를 겁박했던 대한반공청년회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과 폭력 등을 행사했고 4·19혁명 당시에는 정치깡패 유지광 등의 지휘로 4월 18일 '고려대생 시위대습격사건'을 일으켰던 대표적 극우 친정부 단체였다.

1심 재판이 있고 난 후 이승만은 격노했고 2심배판부는 '알아서'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통령과 사법부가 살인의 공동정범이었던 세상이었다. 사법살인을 자행하며 종신 대통령을 꿈꿨던 독재자는 불과 아홉 달 후 민인들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다.

일제시대에는 사회주의를 통한 독립 운동을 펼쳤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각료로서 소임을 다했던 그는 평화통일의 기치를 처음으로 치켜들었지만 결국 1959년 7월 31일 교수형으로 파란 많은 인생을 마감한다. 이승만 정권은 남은 가족들이 발인제도 못하고 곡도 금하게 했다.

2011년 1월 20일, 52년 만에 대법원 판사 전원 합의로 그에게 덧씌워졌던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이 있기까지 그 세월은 길고도 잔인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꿈꾼 책임정치, 수탈 없는 정의로운 경제, 평화통일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살아남은 이들이 기억해 할 그의 유언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못 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후배들이 하나갈 것이네. 결국 어느 땐가 평화통일의 날이 올 것이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날이 올 것이네. 나는 씨만 뿌리고 가네."**

1959년 7월 31일 죽산 조봉암이 씨앗을 뿌리며 우리 곁을 떠났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여섯 번째 이야기 “꽃으로 피어난 윤�필암(2)”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승사 사불전 | 사불전은 수려한 모습만으로도 스스로가 아름답다. 사불바위까지 마주했으니 신성한 분위기는 절로 고양된다.

윤필암은 만공선사의 제자로 비구니 선맥을 연 법희선사와 본공, 인홍 등 이름 높은 비구니 선승들이 거쳐 간 자리다. 비구니 도인으로 알려진 선경스님이 90년대 중반에 열반 직전까지 머물렀던 공간이기도 하다. 전생의 인연과 관련한 선경스님의 수행담은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하다.

스님은 본래 일자무식에다가 얼굴까지 천하의 박색이었다고 한다. 무식하고 못생긴 스님이 19살에 시집이라고 갔는데, 첫날밤에 서방에게 당장 소박을 맞았다. 친정집에서 눈칫밥을 먹던 스님은 이후 충남 공주 마곡사의 영은암으로 출가를 했는데, 어쩌다가 예산 수덕사의 견성암에 가면 비구니들도 참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스님은 무작정 수덕사로 달려가 만공선사에게 '화두하나 주십시오.'하고 매달렸다.

선경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만공선사께서는 '네까짓 게 공부는 무슨 공부야?'하고 구박을 한 다음, '일이나해라!' 하며 공양간으로 내몰았다. 스님이 한동안 공양간을 지키며 곰곰이 생각해 봄에, 다른 스님들은 다 선방으로 보내 공부를 시키면서 자기는 부엌데기로만 부러먹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때 선경스님은 견성암에 이어 두 번째로 비구니 선방을 열었다는 윤필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길로 대승사로 달려간 선경스님은 다짜고짜 조실스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화두 하나 주십시오.'하며 졸랐다. 그러자 선경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대승사 조실스님 역시 '네까짓 게 공부는 무슨 공부야?'하고 내치면서, '일이나해라!'하였다.

온갖 구박 속에 통사정을 해서 어느 날 선경스님은 드디어 선방에 겨우 끼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스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나왔다. 시집가서 첫날밤 소박맞은 이래, 절에서도 끊임없이 구박만 당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도 서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리를 내서 울면, 천신만고 끝에 들어간 선방에서 남의 공부나 방해한다며 쫓겨날까 두려웠다.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며 스님은 소리 없이 울었다.

이렇게 몇 날 며칠 눈물을 쏟아 내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하얀 종이에 쓰인 까만 글씨 같은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일자무식인 선경스님은 그 글자가 도대체 어떤 글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리가 없었다. '이게 무슨 글자일까?'하는 의문 속에 스님은 잠이 오질 않았으니, 그 글자들은 저절로 선경스님의 화두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음을 모아 화두에 집중하는 나날이 계속되자, 어느 순간 스님의 뇌리에 자신의 전생이 흰하게 비쳐졌다. 알고 보니 스님은 전생에 아주 잘생긴 데다가 박학다식하기까지 한 속리산 법주사의 비구니 스님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용모와 지식이 탁월함을 뽐내어“네까짓 게 뭘 알아!”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파계를 하고 만 비구니스님은 열반 직전에 ‘만법귀일萬法歸一하니, 일귀하처一歸何處오?’라는 화두에 참구했다고 한다. 이 화두는 ‘모든 진리는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여덟 글자는 윤�필암에 와 며칠을 울던 선경스님의 눈에 비쳤던 바로 그 글자들이었다. 아울러 만공선사와 대승사 조실스님 역시 선경스님의 전생을 미리 내다보고는 선경스님이 지은 전생의 업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일부러 전생의 비구니가 사용하던 말투를 그대로 흉내 내서‘네까짓 게 공부는 무슨 공부냐?’하면서 핀잔을 주며 구박했던 것이다.



**삼성각으로 가는 계단** | 계곡을 따라 늘어선 계단과 난간이 한 폭의 그림이다.

선원 뒤쪽에는 삼성각이 따로 섰다. 계곡을 끼고 삼성각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단정하고 아담하게 꾸민 목교木橋옆을 지난다. 물소리가 아주 경쾌하고 시원하다. 둘러보면, 윤�필암은 참으로 아름다운 암자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윤�필암은 기화요초로 꾸민 꽃들의 세상이고, 별천지라고 할 수 있다.

벼랑으로 둘러쳐진 계곡에 자리 잡은 이곳은 비구니 스님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빛은 꽃 세상이다. 꽃으로 구현한 화엄의 별천지다. 꽃세상은 입구의 길가에서부터, 해우소를 지나 길 왼편의 정원에서부터 펼쳐진다. 정원 옆에는 연못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정원에는 개양귀비가 날렸으니, 대부분 연노랑 빛깔로 고결한 자태를 뽐낸다. 몇 측은 붉은빛을 애절하게 토해 낸다. 매발톱은 하도 많아 스스로 빛을 잃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반가운 것은 앵초다. 입구의 약수터 위쪽에 터를 연 화단의 귀퉁이에 숨어 있는데, 철이 지난 탓에 이제는 시든 꽃잎 몇 장만 겨우 남았다. 또랑또랑한 모습도 쪼그라들었고, 고운 분홍빛도 퇴색하고 말았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내내 보지 못해 그리워 하던 아주 작고 고운 풀꽃이라서 눈길 거두기가 어려웠다.

이름과는 달리 잎이 넓적한 산마늘도 조만간 꽃을 피우려는지, 긴 꽃대를 빼물고 위에도 둥근 꽃송이를 달았다. 작약도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니, 한쪽 구석에서 세 송이가 하얗다. 창포는 줄기에 꽃대를 품어 통통해졌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외래종 꽃들도 도처에서 자신만의 꽃을 자신만의 빛깔로 활짝 펼쳤다.

사실 지금은 꽃구경으로 다소 늦은 때다. 돌단풍은 벌써 꽃잎을 털어내고 초록의 잎사귀를 흔든다. 황매화는 노란 꽃잎을 잃어 푸른빛 일색이다. 봄철 내내 흐드러졌을 영산홍은 풀 죽은 표정이다. 한달만 일찍 왔더라면, 불꽃으로 타오르는 영산홍을 보았으리라. 그늘 아래는 호이초가 새파랗게 깔렸다. 귀퉁이에서는 설움 겨운 머느리밥풀꽃이 입술에 밥알을 물었다. 옥잠화는 내일을 기약하는 꽃대를 밀어 올릴 기세다.

윤필암에 대해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사찰음식으로도 명성이 높은 암자라는 점이다. 70세가 넘는 이곳의 노스님은 전통적인 사찰 음식의 계승과 전수를 위해 여념이 없으시다고 한다. 스님의 맛깔스럽고 정갈한 음식은 꽃들과 함께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리라.

**다음 주는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일곱 번째 이야기 “마애석불과 석간수”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